

용문면 주민자치위원회

(경기도 양평군)

I. 일반현황

1. 주민자치사업 현황

사업명	사업내용	특이사항
인생나눔교실 자유기획 공모 선정 - 용문면사람들의 인생나눔 이야기	용문면 사람들의 이웃이모, 이웃삼촌, 이웃사촌 관계맺기	
이웃사촌 관계맺기 나눔캠프	멘토링에 참여한 초등학생, 청소년, 사춘기 엄마들의 이웃사촌 관계맺기	
인생나눔 콘서트	○나도 연극배우 멘티팀의 '초등은 괴로워' 연극공연과 ○'소리꾼 박애리와 함께하는 인생나눔 콘서트' 진행	
마을어르신 행복만들기 프로젝트	○주민자치위원의 재능기부로 웃음치 료와 레크레이션 진행 ○31개 마을회관에 주민자치위원 재능 기부로 제작한 행복우체통 전달	

2. 주민자치위원회(주민자치회) 운영

-> 월례회의 및 분과운영

- "양평군주민자치센터 시행규칙" 제20조(회의)에 의거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고문 및 위원에게 통보→사무장은 회의록을 작성 →위원장은 읍·면장에게 통보→매월 세째주 금요일 18시 월례회의 진행(월 1회 임원 및 분과장 회의를 통한 안건 취합)
- 자치분과, 문화예술분과, 평생교육분과, 보건복지분과, 자원봉사자회등 5개분과 운영

-> 위원회 자치활동

- 월례회의 및 임시회의를 통해 연간계획, 수강료 징수·관리, 사업보조금 집행관리, 프로그램 개설등을 심의·의결하고, 자체사업 및 공모사업에 참여하여 기획·운영 진행
- 지역 내 단체와 연계하여 지역현안 및 발전방향 논의 및 관내 지역행사 공동 참여

-> 프로그램 개수, 동아리 유무

○ 2018년 하반기 기준 22개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5개의 동아리가 지역축제 및 문화행사에 적극 참여하고 있음

-> 위원 위촉과정 및 구성

- "양평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제17조(구성)에 의거 공개모집 또는 추천→선정위원회에서 심사→읍면장 위촉(임기 2년)

- 각계 각층이 균형있게 참여할 수 있도록 위촉하며, 여성위원의 참여를 적극 추진중으로 현재 52%의 과반수 참여(전체 25명의 위원중 여성 13명)
- 총 위원 25명(남 12명, 여 13명)으로 구성

II. 대표사례

1. 사례명 : 용문면사람들 인생나눔 이야기(이웃이모, 이웃삼촌, 이웃사촌 관계맺기)

2. 추진기간: 2017년 6월 ~ 2017년 12월

3. 추진주체: 용문면주민자치위원회

4. 추진배경 및 목적

- 용문면 지역은 이주민과 원주민의 비율이 55:45로 이주민이 많은 곳으로 지역민이 자연스럽게 소통할 문화적 공간과 콘텐츠가 전무한 점을 감안하여 문화와 예술, 인문학으로 삶을 소통하고 나누고 어루만질 수 있는 다양한 형식의 멘토링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운영하는 “인생나눔교실-자유기획” 사업에 공모(문화체육관광부 주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주최)하여 선정 됨
- 세대간, 계층간 사회구성원간의 소소한 불통의 문제를 세대·계층별로 그룹지어 소통할 수 있고, 이들의 갈등과 고민을 경청과 배려로 나누고 어루만질 수 있는 용문사람들 “이웃이모, 이웃삼촌, 이웃사촌” 관계 맺기로 친근하고 끈끈한 지속적 멘토 문화 창출 기여
- 용문면의 특징에 맞게 생애주기형 멘토링과 이주민 원주민의 관계맺기형 멘토링으로 구분하여 진행. 육아에서, 사춘기, 갱년기, 노년의 홀몸 어르신등 생애주기형과 지역 원주민과 이주민의 문화적 갈등해소와 이주민들의 정착지원, 한부모와 조부모 가정의 교육문제, 다문화 가정의 문화적 소외문제에 대해 멘토링을 통해 “관계맺기”에 주안점을 두고 멘토링 활동 전개

5. 추진과정 및 내용

- 2017년 5월: 인생나눔교실 사업 선정 및 설명회 실시
- 2017년 6월: “이웃이모, 이웃삼촌, 이웃사촌” 멘토 선발, 주민자치위원회 위원들과 면사무소 복지팀, 문화예술관련 담당자, 이장단협의회, 새마을부녀회, 양평군평생학습매니저, 학부모 등을 대상으로 인생나눔교실의 사업 소개 및 멘토 추천 받음
- 2017년 6월: 멘토 추천대상자 모집, 2차 사업설명회에 멘토 역할과 역량 설명
- 멘토교육: 인생나눔교실 멘토링 우수사례 소개, 용문지역 멘티그룹에 적합한 멘토링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워크숍 실시
- 멘토 소모임 운영: 멘토링이 실행되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나 고충이 유발되므로 소모임을 통해 해결, 멘토의 멘토링에 대한 평가회 진행
- 9개의 멘토링 진행: 할머니 엄마 다시 육아! (첫아이, 리턴육아 - 쑥쑥 자라라!), 나는 나! (갱년기 줌마들의 변화 -인생을 그리다), 혼자서도 행복합니다!(홀몸어르신-몸으로 만나는 삶), 춘기야 놀자!(사춘기 청소년 - 우리도 춤춘다), 사춘기 자녀와 소통이 필요한 엄마들(꽃차에 인생을 담다), 삼대 가족이 함께 사는 며느리들(편지로 쓰는 인생이야기), 문화多·사랑 多(한부모, 조손가정 어린이 - 나도 연극배우), 내 마을소개 프로젝트(다문화-꿈을 관찰한다), 나도 농사짓는다!(원주민과 이주민-내집 텃밭 가꾸기)

6. 성과 및 지역사회 기여

-> 성과

- '첫 아이 리턴육아', '갱년기 여성들', '나도 농사 짓는다', '홀몸 어르신' 등의 멘토링 프로그램은 이주민과 원주민이 함께 소통하고 '이웃사촌'으로 정착 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가능성을 확보 함
- '사춘기 청소년'과 그 청소년을 둔 가족들의 각각 멘토링을 진행하여, 부모세대에 대한 이해, 내 아이에 대한 이해, 내 친구에 대한 이해의 과정을 거치면서 세대간 고민을 나누고 소통 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시간을 가졌음
- 생애 주기에 따른 심신의 변화를 겪게 되는 사춘기, 갱년기, 육아활동의 엄마·홀몸어르신 등 개별 세대와 계층의 고민으로 섞어서 공유하는 '나도 겪어 봤고, 너도 겪게 될 경험치'를 소통하는 프로그램 사례가 생성 됨
- 용문면주민자치위원회는 이번 사업을 통해 '용문면 사람들'에 대한 개별적 관심도가 높아 졌다는 점이 지역사회의 변화에 단초를 마련 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음

-> 지역사회 기여

- 건강한 마을공동체 문화를 형성할 수 있는 기초 토대를 마련 함
- 소외 계층 갈등세대라 할 계층과 세대를 아우르는 문화 형성
- 주민자치위원회 주최의 용문면사람들 이웃사촌 관계맺기로 탄탄한 마을문화 형성에 기여

<사업 사진>



쑥쑥 자라라 (할머니엄마 다시 육아)



인생을 그리다(갱년기 줌마들의 변화)



꽃차에 인생을 담다
(사춘기 자녀와 소통이 필요한 엄마들)



편지로 쓰는 인생이야기
(삼대 가족이 함께 사는 며느리들)



나도 연극배우
(한부모·조손가정 아이들의 문화多, 사랑多)



꿈을 관찰한다
(다문화 아이들의 내 마을 소개 프로젝트)



내집 텃밭 가꾸기
(원주민과 이주민의 나도 농사 짓는다!)



소리꾼 박애리와 함께하는 "인생나눔콘서트"



몸으로 만나는 삶(흠뻑어르신 혼자서도행복합니다)



우리도 춤춘다-춘기야 놀자(사춘기 청소년)